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조직으로

입사 후 기술팀에서 한창 업무를

배우던 대리 시절 'CFP(Clean Fuel Project)'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Project(공장의 기안→설계→시공→시운전)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져서

설레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업무라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Project를 함께 수행한 팀에는 이미 Project 경험이 있는 선배도 있었고, Project를

처음 해보는 동기과 후배도 있었습니다. Project 기간 동안 주중에는 매일 야근이었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한 팀원 중 일부는 퇴직하여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회사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임원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팀 책임자로 Project를 이끈 팀장님의 리더십이 많이 생각납니다. 당시 팀장님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팀원에게 제시하고 업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실수를 부하직원의 성장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추가 근무에도 모든 팀원이 불만 없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회사의 인력 구성에서 개인의 만족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관리 그룹을 이루는 기성세대와는 직장생활에 임하는 업무 자세 및 동료와 맺는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었지만 MZ세대 및 기존 직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웃으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 정금동(HOU1팀 상무)